

박 신임 회장은 중기중앙회 정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527명 중 498명이 투표(투표율 94.5%)한 결선투표에서 294표(득표율 59.0%)를 얻어 당선됐다.

박 회장과 함께 결선 투표에 나선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4표(41.0%)를 받았다.

앞서 열린 1차 투표에서 박 신임 회장은 투표자 518명 중 154표(29.7%)를 얻었고, 이 이사장은 130표(25.1%),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12표(21.6%)를 얻었다.

중기중앙회는 첫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득표자끼리 결선 투표를 치른다.

박 신임 회장은 제25대 회장으로 4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 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안성 출신인 박 신임 회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LG그룹에 입사해 근무하다 1990년 전자재와 골재 유통사인 산하물산을 설립했다.

이후 사업을 확장해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인 산하, 컨테이너 물품을 보관하고 골재를 생산하는 위업개발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위업인베스트먼트 등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합 공동구매·물류회사 구축 ▲지역별 공동비즈니스 오피스센터 마련 ▲동반성장위원회를 대체할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경쟁력 우위업종 지정 ▲단체수익계약제도를 보완한 단체인증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 간의 비방은 물론 선거 직전 벌어진 금품 살포 등과 관련해 박 회장을 비롯한 일부 중소기업 관계자가 검찰에 기소되는 등 잡음이 일었다.

박 회장은 조합 임원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박 회장이 불법선거 혐의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박 회장에 대한 재판은 연기됐다.

## ■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정·관계로 확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전(前) 경제부총리 등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중진공이 신입 직원 4명을 부정 채용했다며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과 직원 1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이들을 합격시킨 뒤 면접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 채용하게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합격한 4명 가운데 1명은 행정직 4천71등이었지만 점수 조작으로 120등까지 등수가 뛰어올랐고, 또 다른 1명은 화공·환경 분야 258등이었지만 역시 점수 조작으로 11등이 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다만 검찰은 전직 인턴직원의 채용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이고 무혐의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서면조사에서 '당시는 원내총무를 맡고 있어서 많은 이들을 만났으나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용 청탁을 한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 등도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부정 채용에 관여한 중진공 인사팀장 등 실무자들 역시 중진공 내부에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채용 청탁을 한 이들로 기획재정부와 보훈처는 물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철규 전 이사장의 후임인 임채운 이사장은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며 1차 서류전형과 2차인 적성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등 채용시스템을 바꿨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 재계동향

### ■ 개요

한국경제는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대하면서 2015년을 시작했지만 3년 만에 가장 낮은 2.6%에 그치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의 여파가 있는데다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재계는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한해를 보내다시피 했다.

주요 그룹의 구조조정도 잇따랐다. 2014년에 방산·화학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넘겼던 삼성그룹은 2015년 10월 나머지 화학계열사를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제2의 빅딜'을 단행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시켰다.

이런 외중에 롯데그룹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고, 사면복권으로 출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간지를 통해 복잡한 가정사에 대한 심경고백을 담은 편지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박삼구 회장은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에 넘어간 금호산업을 6년 만에 되찾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건했다.

연말에 주요 그룹이 단행한 정기인사에서는 오너가의 3~4세가 승진 등을 하며 약진했다.

### ■ 삼성발 자율 빅딜··재계 판도변화

삼성그룹은 2014년 말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비롯해 방산·화학부문 4개 계열사를 1조9천여억원에 한화그룹으로 매각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대기업 간 빅딜이었다. 순수 민간 주도의 대단위 기업 매각 작업으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삼성은 불과 1년도 채 지나기 전인 2015년 10월 말 삼성SDI 케미칼 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나머지 화학 계열사를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제2의 빅딜'을 전격 단행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화학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전자·금융을 양대 축으로 하는 사업 구조로 재편됐다.

한화그룹으로 넘어간 삼성종합화학이나 롯데에 매각된 삼성정밀화학 등이 2014년 영업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흑자 계열사라는 점에서 삼성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재계에 던지는 충격은 컸다.

삼성그룹의 사업재편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만큼 전격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삼성물산이 상사와 건설 등 기존 사업에서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자 미래 성장을 위해 제일모직과의 결합을 추진한 것이다.

통합 삼성물산은 패션과 식음, 건설, 레저는 물론 바이오사업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미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삼성발 빅딜은 전체 재계 지도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한화그룹은 모태인 방위산업 부문에서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인수, 매출 규모가 2조6천억대로 늘어나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섰다.

한화의 석유화학 부문도 종합화학과 토탈의 가세로 매출 규모가 19조원으로 커져 국내 석유화학 시장 정상상을 놓고 다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화그룹 전체적으로는 자산 규모가 37조9천500억원에서 50조5천700억원으로 증가했고 재계순위도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삼성으로부터 나머지 화학사업을 물려받게 된 롯데그룹도 마찬가지다. 롯데는 비단 이번 삼성과의 빅딜 외에도 인수·합병(M&A) 시장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집단으로 꼽힌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0년 1월 이후 국내 30대 그룹의 M&A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2건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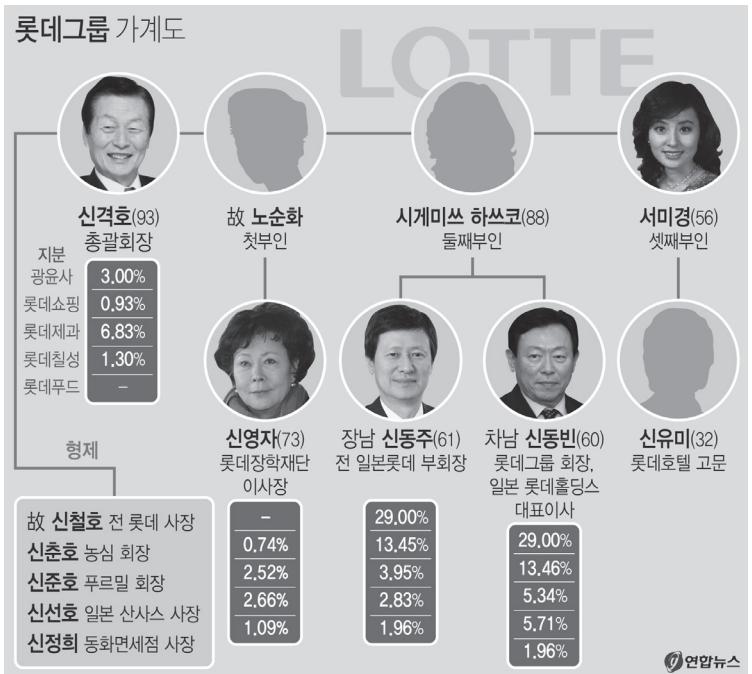
롯데는 2011년 신동빈 회장 취임 이후 공격적 전략을 펼쳐 하이마트, 현대로지스틱스 등 굵직한 M&A를 성사시켰다. 2015년에도 더 뉴욕 팰리스 호텔, KT렌탈에 이어 삼성의 화학사업을 인수했다.

이 같은 M&A에 힘입어 2010년 87조2천억원이었던 롯데의 자산은 2015년 10월 말 기준 117조3천억원으로 35% 가량 급증했다.

### ■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

롯데그룹은 또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 따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란'은 실패했지만 이후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부



회장·롯데상사 부회장 겸 사장 등 일본 롯데 계열사와 한국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줄줄이 물러났다.

‘일본 롯데는 장남, 한국 롯데는 차남’이라는 암묵적 승계 구도가 깨지고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양국 롯데의 경영권을 모두 손에 쥐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5년 7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돼 양국 롯데의 ‘원톱’ 자리에 오른 데다 한국 롯데그룹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무게를 얻었다.

하지만 7월 27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동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 형제 간 경영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바로 다음날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 모든 인사를 원점으로 돌리고,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하면서 하루만에 ‘쿠데타’를 완전 진압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내세워 각종 여론전과 소송전을 펼치고 있어 롯데는 좀처럼 경영권 분쟁의 암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롯데에 큰 상처를 남겼다. 11월 발표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롯데가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권 재승인에 실패한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업계 1위에 세계 3위이고 월드타워점 운영에서 별다른 하자도 없었던 만큼 경영권 분쟁이 탈락에 상당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 재계 오너 3~4세 대거 약진

주요 그룹이 2015년 말에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오너가 3~4세의 약진이다. 승진한 오너

가 일원들은 기업의 신규사업이나 전략기획부문에서 주로 두 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영업실장은 12월 6일 발표된 정기인사를 통해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김 실장은 2월 태양광 계열사를 한화큐셀로 통합해 셀 생산 규모 기준 세계 1위의 태양광 회사를 탄생시키고 이후 구조조정과 생산효율성 개선을 이루어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태양광 업계 단일계약 최대 규모인 미국 넥스트에라(NextEra)와의 공급계약을 포함해 세계 전역에서 사업수주를 이뤄냈다. 한화큐셀이 3분기 매출 4억2천720만 달러, 순이익 5천24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이 한화그룹의 설명이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기획총괄부문장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정기선 신입 전무는 1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다.

현대중공업은 정 부문장이 사우디 아람코 및 인도와의 협력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뿐 아니라 조선과 해양 영업을 통합한 영업본부의 총괄부문장까지 겸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은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으로 승진했다.

고 이병철 창업주를 뿌리로 치자면 신세계에서도 오너 3세인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 남매가 경영 전면에 부상한 셈이다.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삼성물산 패션부문 경영기획전략담당 사장에서 패션부문장으로 '격'을 높였다.

통합 삼성물산은 이 사장이 사업부문장이 됨에 따라 기존 4인 대표체제에서 대표 3인과 오너 1인 체제로 바뀌었다. 패션전문가인 이 사장은 삼성의 패션사업을 이끄는 '원톱'으로 부상했다.

12월 1일 발표된 GS그룹 인사는 2세 시대가 막을 내리고 4세들이 전면에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고 허만정 창업주의 증손자이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장남인 허준홍 GS칼텍스 법인사업부문장이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또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허윤홍 GS건설 사업지원실장도 상무에서 전무로 올라갔다. 허윤홍 실장은 한때 주유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쌓을 만큼 현장에서 하드트레이닝을 받았다.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남인 허서홍 부장은 GS에너지 전력·집단에너지 사업부문장을 맡아 상무가 됐다. GS그룹에서 창업 2세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은 이번 인사에서 옹퇴했다.

두산도 4세 경영인에게 중책을 맡겼다. 두산그룹 박승직 창업주의 증손자이자 박두병 초대 회장의 손자, 박용만 현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오리콤 크리에이티브총괄 부사장은 면세점 유통사업부문의 전략담당 전무를 맡았다.

두산은 동대문 두타(두산타워)에 면세점을 만들어 2016년 중 영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룹이 새로 진출한 면세점 사업을 30대 중반의 오너가 4세에게 맡긴 셈이다.

코오롱도 4세가 임원 대열에 합류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 경영진단실 부장

은 상무보로 승진해 이번에 '별'을 달았다. 이 상무보는 고 이원만 코오롱 창업주의 증손자이자 2014년 11월 별세한 이동찬 명예회장의 손자다.

## ■ 박삼구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15년 12월 29일 금호산업 채권단에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 인수대금 7천228억원을 완납했다.

박 회장은 2009년 12월 유동성 위기로 그룹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채권단에 넘어간 지 만 6년 만에 금호산업과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되찾았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직원 모두가 창업 초심으로 돌아가 항공, 타이어, 건설 등 그룹 주력 사업 분야가 비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박 회장이 새 판을 어떻게 짤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장밋빛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금호산업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빌린 돈이 너무 많고 투자자 명단이나 금리·거래 조건이 베일에 감춰져 있다.

2015년 6월 메르스 발생과 동시에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2016년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시아나항공은 12월 30일 ▲지점 45곳 통폐합 ▲희망퇴직과 휴직 ▲예약·발권부서와 국내 공항서비스 등 아웃소싱 ▲단거리노선 승무원 7명에서 6명 감축▲임원 임금삭감 및 차량 반납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 ■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정사 심경고백

2015년 마지막 주에 재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 일간에 공개한 편지 한통으로 떠들썩했다.

최태원 회장은 12월 29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A4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노 관장과 십년이 넘게 깊은 꿈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종교활동 등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은 2015년 8월 사면복권으로 출소한 이후 A씨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살고 있고 노 관장은 워커히호텔 내 빌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A씨 사이에는 6살 난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혀 둘 간의 이혼소송은 당분간 제기될 가능성이 낮다.

최 회장도 편지 공개가 이혼이 아닌 '커밍아웃'이 목적이었다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측근을 통해 전하면서 이번 일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